

## 곤충이야기-사마귀

사마귀는 곤충 가운데 무서운 포식자라 불리울 정도로 드세고 날카로운 앞다리로 약한 곤충들을 사냥하여 잡아먹고 사는 곤충이다. 공격성이 매우 강하며 자신보다 크기가 작거나 비슷한 움직이는 대상은 모두 먹이로 알고 공격한다. 많은 곤충들 중에 사람을 만나도 도망가지 않고 덤벼드는 대단한 공격성을 지닌 놈이다. 앞다리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체중의 배가 넘는 먹이도 제압할 수 있다. 심지어는 개구리, 도마뱀, 쥐 등의 척추동물을 사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마귀는 어린 시절 들에서 메뚜기를 잡다가 만나게 되면 무서워하며 피했고 사마귀가 살에 닿으면 피부에 동그랗게 돋는 사마귀가 생긴다 하여 혐오의 대상이었다.

사자성어에 당랑거첵(螳螂拒轍)이란 말이 있다. 춘추시대 제나라 때의 장공이란 장수가 수레바퀴에 덤벼드는 사마귀를 피하여 갔다는 이야기에 서 비롯된 말인데 이기지도 못할 적을 향해 무모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사마귀는 그 이름이 색다르다. 영어 이름인 mantid는 짐쟁이란 뜻이 있는데 사마귀를 신령한 힘이 있는 곤충으로 본데서 유래한다. praying mantid 라고도 하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들어 올릴 때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신을 경외하는 곤충이라 일컬어지기도 했지만 devil's horse(악마의 말), mule killer(노새 살해자) 등의 비호감의 이름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말로는 버마재비라고 하는데 범의 아재라는 뜻이다. 호랑이 보다 우위에 있다는 말인데 그 기세가 참으로 대단한 벌레이다.

사마귀가 무서운 곤충으로 각인되어 있는 더 큰 이유가 있다. 짝짓기 시기에 짝짓기가 끝나면 암놈이 수놈을 잡아먹기 때문이다. 험악한 놈이라 비난이 있겠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종족보존을 위해 새끼들의 자양분이 되어도 좋다는 각오로 암놈위에 오르는 아비의 희생을 생각하면 숭고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렇다고 모든 수놈이 희생되는 것은 아니다 먹이가 모자를 때만 수놈을 먹이로 취하는 것이다.

위의 설명만으로 보면 사마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농사에 있어서는 이로운 곤충이다. 농작물을 해치는 벌레들을 많이 잡아먹기 때

문이다. 채소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으로서 밭에서 만나게 되는 사마귀는 반가운 곤충이 아닐 수 없다.

먹이사슬의 안정성은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 꼭 유지되어야 한다. 호랑이나 표범과 같이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동물들이 우리나라 생태계에서 사라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곤충의 세계에 있어서도 이것은 같다. 곤충들의 먹이사슬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마귀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서 혐오스런 곤충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존재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農